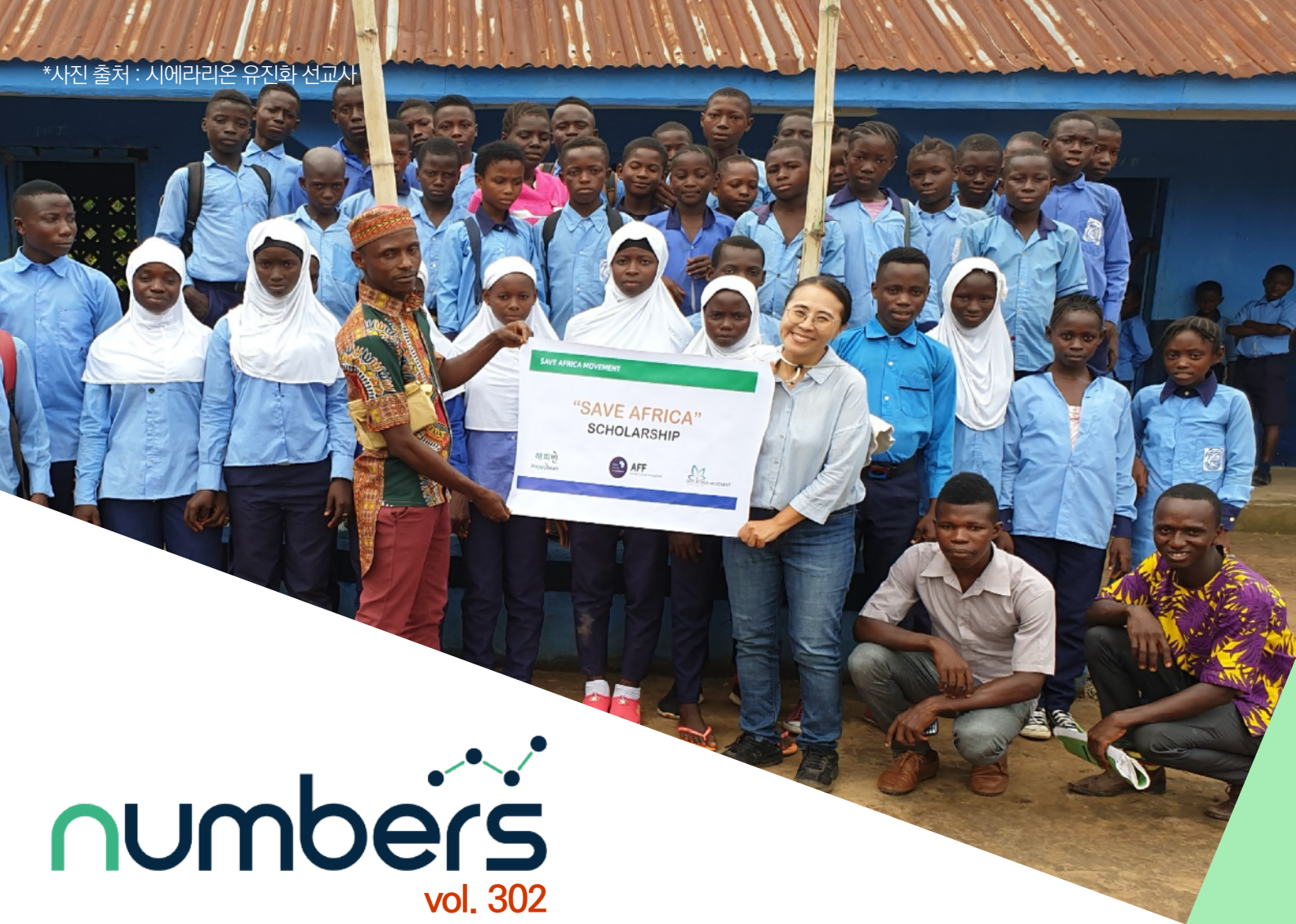


*사진 출처 : 시에라리온 유진화 선교사



numbers
vol. 302

해외 한인선교사 위기와 돌봄 실태 여성 선교사, '정신 건강 문제' 남성보다 훨씬 심각!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 ② 성별 임금 격차: OECD국 비교

[넘버즈 칼럼]

다시 자살 1위, 교회는 위기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2025.9. 9.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여성 선교사, ‘정신 건강 문제’ 남성보다 훨씬 심각!

2024년 말 기준, 한국에서 파송된 해외 장기 선교사들은 21,621명이다(한국세계선교협의회/한국선교연구원, 2024 한국선교현황). 장기 파송 선교사 규모는 2019년 28,039명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선교사의 연령대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의 선교 전략에 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현장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 환경과 위기·돌봄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에 본 호에서는 최근 실시한 ‘해외 한인선교사 위기와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미국 AEU 미성대) 결과를 바탕으로, 선교 환경의 위험 요인과 돌봄 체계의 공백, 그리고 선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짚어본다.

이번 <넘버즈 302호>를 통해 한국교회가 선교사의 위기/돌봄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정적인 선교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선교사 위기와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해외 현장에 있는 선교사 (태국, 몽골,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중국, 케냐, 세네갈, 차드,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미국, 중남미, 영국, 독일, 중동 등) 22개국별 5~9명
표본 규모	132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	할당추출법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R 프로그래밍과 엑셀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5년 4월 10일 ~ 2025년 4월 21일 (총 11일간)
조사 주체/실시	미국 AEU 미성대 박사과정 학생팀 (자문 :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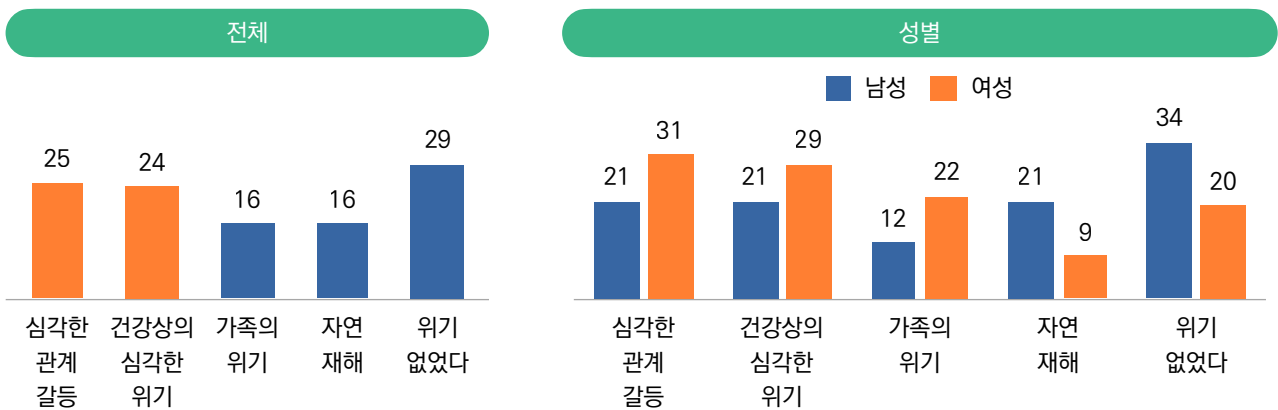
01

[생활/체류 환경]

선교사 4명 중 1명꼴, 최근 3년 내 '관계 갈등/건강' 위기 경험!

- 최근 3년 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위기를 묻은 결과, '심각한 관계 갈등'(25%)과 '건강상의 위기'(2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로 보면 여성 선교사가 남성보다 '관계/건강/가족 영역'에서 위기 경험률이 높았고, 반면 남성 선교사는 '자연 재해'와 '위기 없음' 응답률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 선교사의 위기 노출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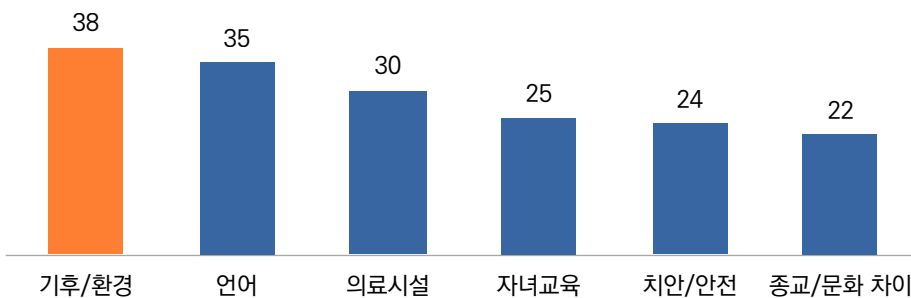
[그림] 최근 3년 내 선교지에서 경험한 위기 (선교사, 중복응답, 상위 5개, %)



선교지 적응의 걸림돌, 기후·언어·의료시설!

- 선교지 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기후/환경'(38%), '언어'(35%), '의료시설'(30%)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선교사들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뿐 아니라 환경적·제도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부담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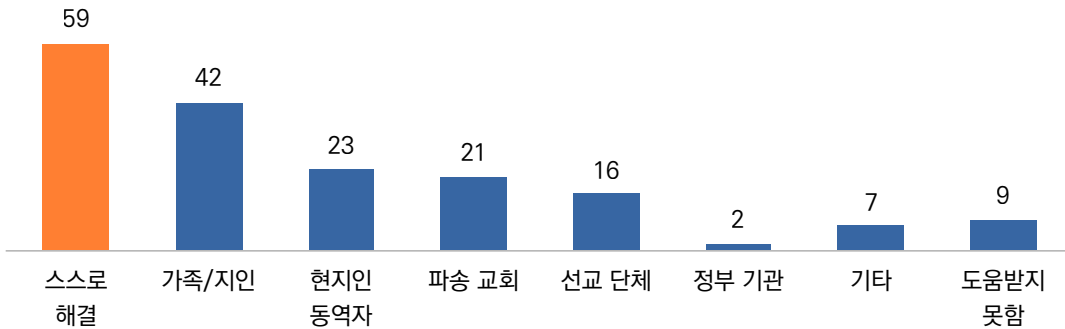
[그림] 선교지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생활 요인 (선교사, 중복응답, 상위 6개, %)



선교지 체류 어려움 겪을 때, 선교사 절반 이상(59%) ‘스스로 해결’!

- 선교지 장기 체류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은 출처로는 선교사의 절반 이상(59%)이 ‘스스로 해결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가족/지인’ 42%, ‘현지인 동역자’ 23% 등의 순이었다. ‘도움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10명 중 1명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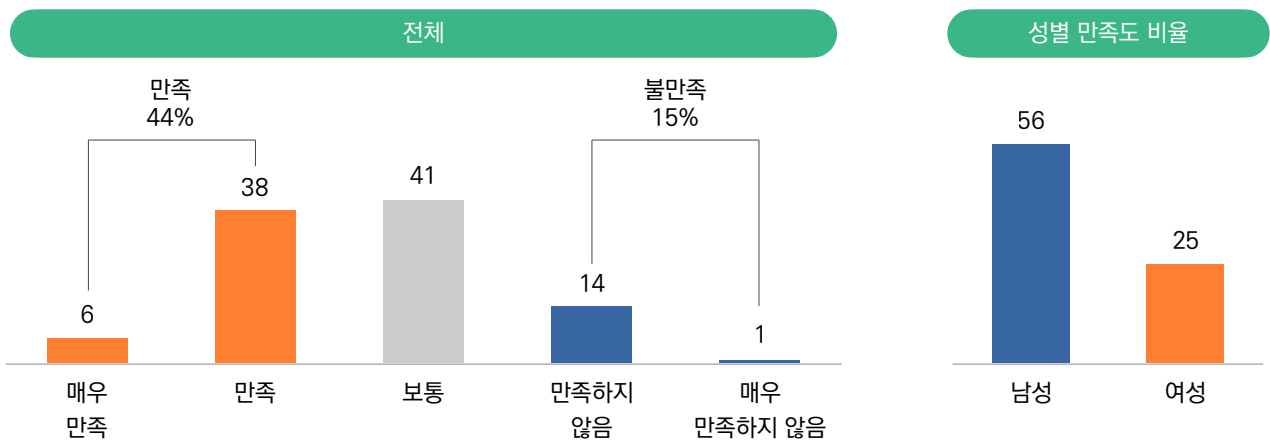
[그림] 선교지 장기 체류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 받은 출처 (선교사, 중복응답, %)



여성 선교사의 장기 체류 도움 만족도, 남성의 절반 수준!

- 이번에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장기 체류를 위해 받은 도움의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 44%, ‘보통’ 41%, ‘불만족’ 15%로 나타났다.
- 특히, 성별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뚜렷했는데, 남성 선교사는 56%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선교사는 25%만 ‘만족’으로 응답해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림] 선교지 장기 체류를 위해 받은 도움 만족도* (선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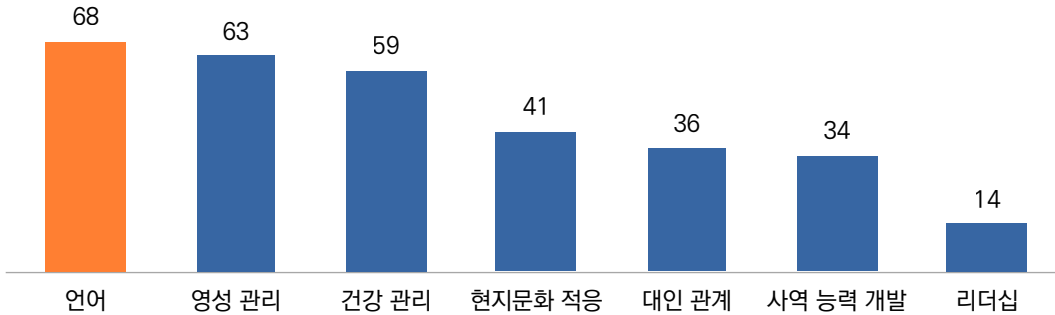


*도움받지 못함은 제외하고 100%로 환산함

선교지 장기 체류를 위한 핵심 요인, 언어·영성·건강!

- 선교지 장기 체류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으로는 ‘언어’(68%), ‘영성 관리’(63%), ‘건강 관리’(59%)가 상위 3위로 꼽혔다.
- 이는 선교사들에게 언어와 영성, 건강이 장기 체류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며, 사역 능력보다 기초적 생활·내적 관리 영역이 더 시급한 과제를 보여준다.

[그림] 선교지 장기 체류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선교사, 중복응답,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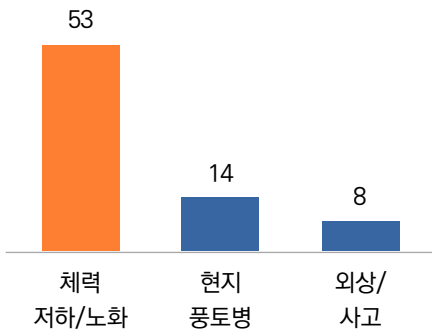
02

[건강 문제]

선교사 절반 이상(53%), 선교지에서 ‘체력 저하/노화’로 힘들었다

- 최근 3년 내 선교지에서 겪은 육체적 건강의 어려움에 대해 선교사들에게 묻은 결과, 선교사 절반 이상이 체력 저하/노화(53%)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현지 풍토병’ 14%, ‘외상/사고’ 8%가 뒤를 이었다.

[그림] 육체적 건강의 어려움 경험* (최근 3년 내, 선교사, 중복응답,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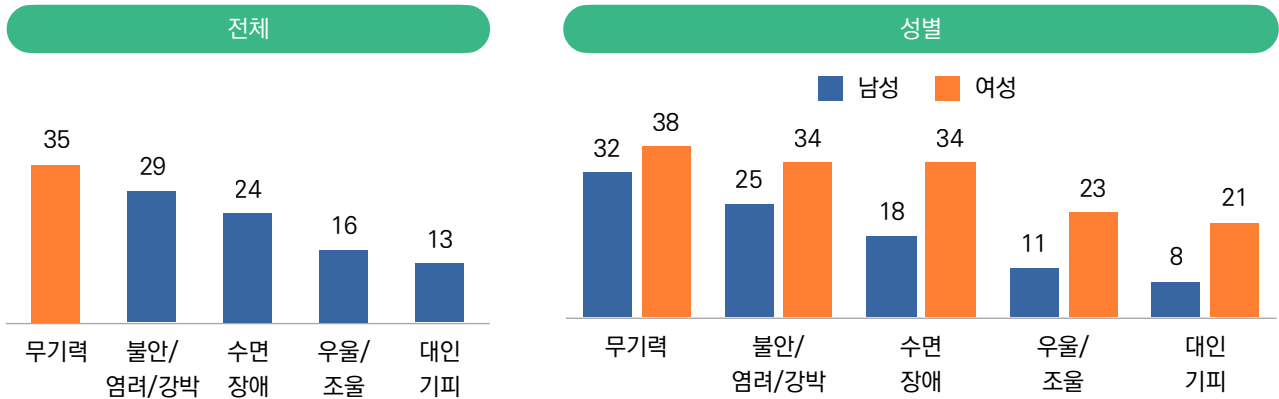


*어려움 없었다는 제외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질문에서 각각 18% 응답)

여성 선교사, '정신 건강 문제' 남성보다 훨씬 심각!

- 선교사들이 겪은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으로는 '무기력'이 3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 선교사가 남성보다 모든 정신 건강 영역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다. 무기력, 불안뿐 아니라 수면장애, 우울, 대인 기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여성 선교사의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돌봄과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그림]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 경험* (최근 3년 내, 선교사, 중복응답,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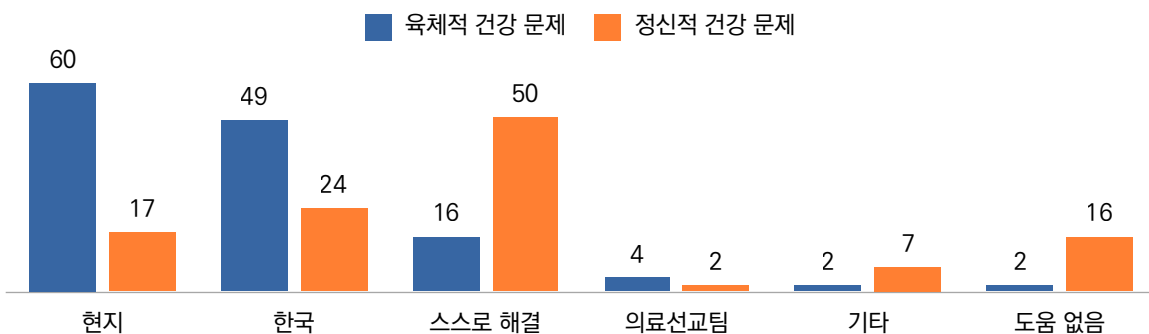


*어려움 없었다는 제외 (정신적 건강 질문에서 29% 응답)

정신 건강 문제, 선교사 2명 중 1명은 '스스로 해결'!

- 육체적 건강 문제는 현지 병원(60%)과 한국 의료기관(49%)을 통해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정신적 건강 문제는 절반 이상이 스스로 해결(50%)하거나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16%)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정신 건강 문제의 경우 전문적 진료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도움 없음' 16%) 비율이 육체적 문제(2%)에 비해 크게 높았는데 이는 정신 건강 돌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원 체계의 미비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림] 육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진료 장소 (선교사,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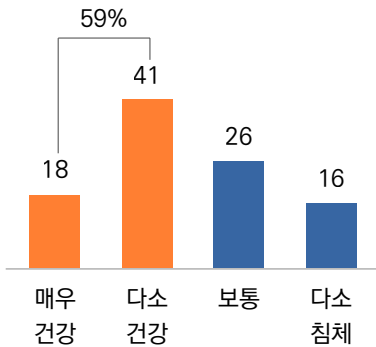
03

[영적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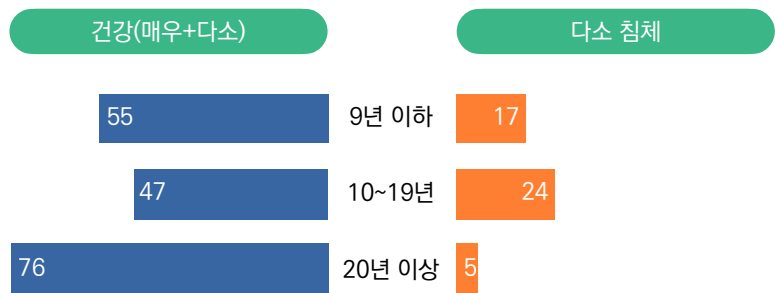
사역 10~19년차, 영적 침체 경험 비율 가장 높아

- 현재 본인의 영적 상태를 묻는 질문에, 선교사의 59%가 '건강하다(매우+다소)'고 응답했다.
- 사역기간별로는 '20년 이상' 선교사에서 '건강하다'(76%)는 응답이 높은 반면, 사역 '10~19년차'에서는 '건강' 비율(47%)이 가장 낮고, '침체' 비율(24%)은 높게 나타났다.
- 이는 사역 중반기(10~19년)에 영적 소진과 위기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선교사의 영적 상태 (선교사, %)



[그림] 사역기간별 선교사의 영적 상태 (선교사, '매우+다소 건강'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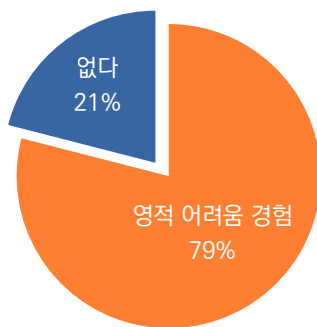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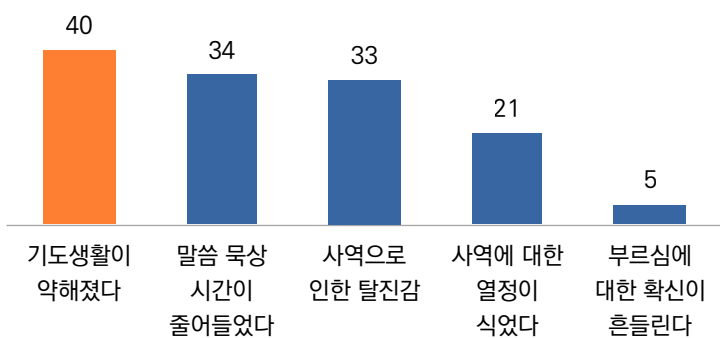
선교사 79%, 최근 1년 내 '영적 어려움' 경험!

- 선교사들에게 영적 어려움 경험에 대해 묻은 결과, 최근 1년 내 선교사의 79%가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도생활이 약해졌다'(40%), '말씀 묵상 시간이 줄어들었다'(34%), '사역으로 인한 탈진감'(33%) 등을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림] 영적인 어려움 경험 여부 (최근 1년 내,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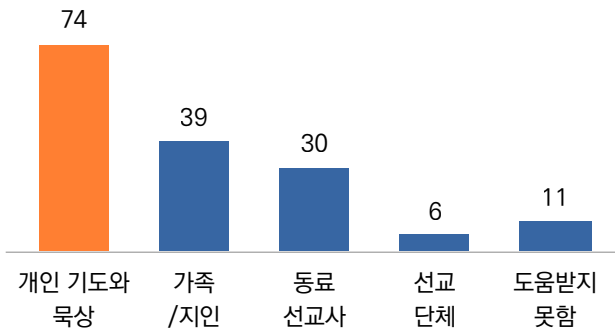
[그림] 영적인 어려움 경험 내용 (최근 1년 내, 영적 어려움 경험한 선교사, 중복응답,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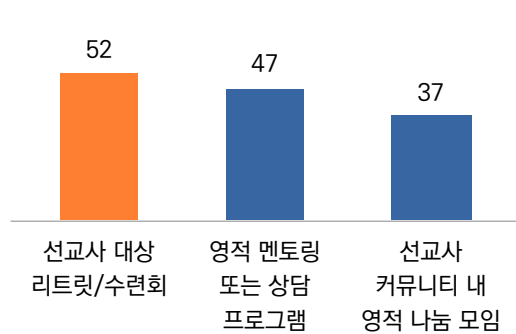
선교사의 영적 돌봄, '개인적 신앙으로 스스로 해결'!

-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출처를 묻자, '개인 기도와 묵상'(74%)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가족/지인' 39%, '동료 선교사' 30% 순이었다. 선교사들의 영적 돌봄이 개인적 신앙 의존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 추후 필요한 영적 돌봄 방식으로는 '선교사 대상 리트릿/수련회'(52%), '영적 멘토링/상담 프로그램'(47%), '선교사 커뮤니티 내 영적 나눔 모임'(37%)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선교사들이 공동체적이고 체계적인 영적 돌봄을 갈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영적 돌봄 출처 (선교사, 중복응답, 상위 5개, %)



[그림] 가장 필요한 영적 돌봄 방식 (선교사, 중복응답,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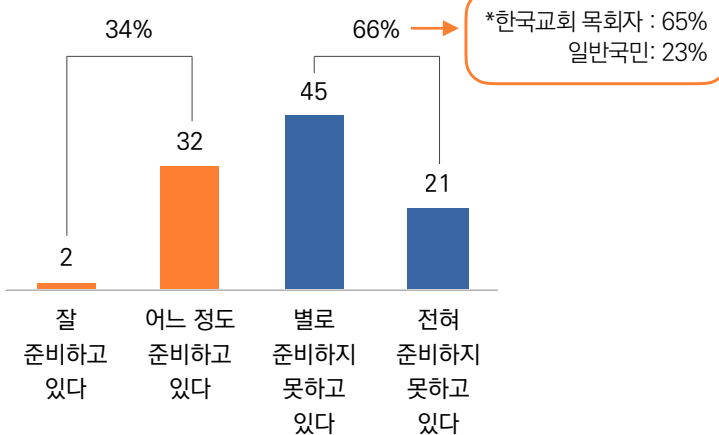
04

[노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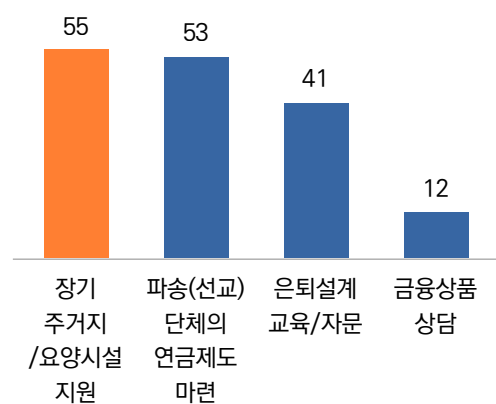
선교사 3명 중 2명, 노후 준비 안 됐다!

- 선교사들의 노후 준비 현황을 보면, 준비 부족 비율('전혀+별로' 준비 못함)은 66%에 달한다. 이는 한국교회 목회자(6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반 국민(40세 이상, 23%)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아 선교사 노후 준비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도움으로는 '장기 주거지/요양시설 지원'(55%), '파송·선교단체의 연금제도 마련'(53%)을 가장 높게 꼽았는데, 선교사들이 단순한 금융 지원보다 안정적 주거와 제도적 지원을 노후 대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노후 준비 현황 (선교사, %)



[그림]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도움 (선교사, 중복응답, 상위 4개, %)



*넘버즈 273호 <목회자의 노후 준비> 참조

- 목회자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 및 인식조사, 2024.11. (전국의 목회자(담임목사, 부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8.20. ~08.23.)

- 일반국민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2023.11.08. (만 40세 이상 가구주 대상)
: 선교사와 비슷한 연령대로 비교하기 위해 일반국민은 만 40세 이상 기준으로 산출함

이번호 요약

1. 선교사 4명 중 1명꼴, 최근 3년 내 ‘관계 갈등/건강’ 위기 경험!

- 최근 3년 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위기로 ‘심각한 관계 갈등’(25%)과 ‘건강상의 위기’(2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여성 선교사, ‘정신 건강 문제’ 남성보다 훨씬 심각!

-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으로는 ‘무기력’(35%)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 선교사가 남성보다 모든 정신 건강 영역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3. 선교사 79%, 최근 1년 내 ‘영적 어려움’ 경험!

- 선교사의 79%가 최근 1년 내 영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도생활이 약해짐’(40%), ‘말씀 묵상 시간이 줄어들음’(34%) 등을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선교사의 뒷모습 (주수경 저, 비아토르)

관련 성경 구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 결과는 선교사의 위기와 돌봄을 개인 신앙과 헌신에만 의존해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여성 선교사의 위기 노출과 사역 중기(10~19년차)의 영적 침체, 그리고 ‘스스로 해결’ 문화가 구조적 한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목회 현장에서는 선교사를 위한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여성 선교사 맞춤형 멤버케어와 정신건강 지원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여성 선교사는 관계·건강·가족 영역에서 위기 경험률이 높고, 장기 체류 도움 만족도도 낮았으며, 정신 건강 문제 경험률도 남성 선교사보다 훨씬 높았다. 따라서 대형 교회 혹은 선교사 지원 단체에서는 선교사 특히 여성선교사들에 대한 상담·의료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담/치료 바우처를 선교 예산 항목으로 설정해, 접근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기 선교사 집중 케어가 필요하다. 10년 차 이상 선교사에게 연 1회 리트릿과 안식 주간, 분기별 영성 점검을 제공해 영적 침체와 번아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의존에 치우친 영적 돌봄을 동료 선교사 소그룹/영성 멘토링 등 공동체 기반으로 전환해 ‘스스로 해결’ 문화를 건강하게 교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교회는 선교사의 관계·정신·영성·생활 전 영역을 입체적으로 지지해 선교 사역을 더 오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2. 성별 임금 격차: OECD국 비교

넘버즈 칼럼

다시 자살 1위, 교회는 위기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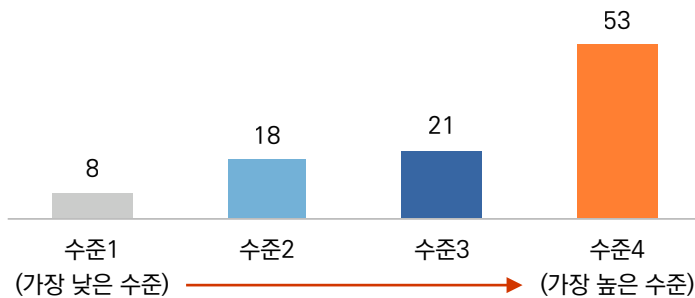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

- 최근 교육부는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1차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디지털 능력 수준을 살펴본다.
-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53%)은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수준4'에 속했다. 반면 성인 4명 중 1명(26%, 수준1+수준2)은 디지털 기기를 다루거나 활용하는 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Note) 디지털 문해능력은 디지털 기본활용, 정보활용, 의사소통, 안전, 문제해결 등 5개 영역을 측정하여 4개 수준으로 나뉘며, 수준1은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이 어려운 가장 낮은 단계이다.

[그림]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별* 현황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 발표, 2025.08.19. (만 18세 이상 성인 약 10,000명, 가구방문 면접조사, 2024.09.~2024.10.)

*수준 정의

수준1 :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 부족,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수준

수준2 :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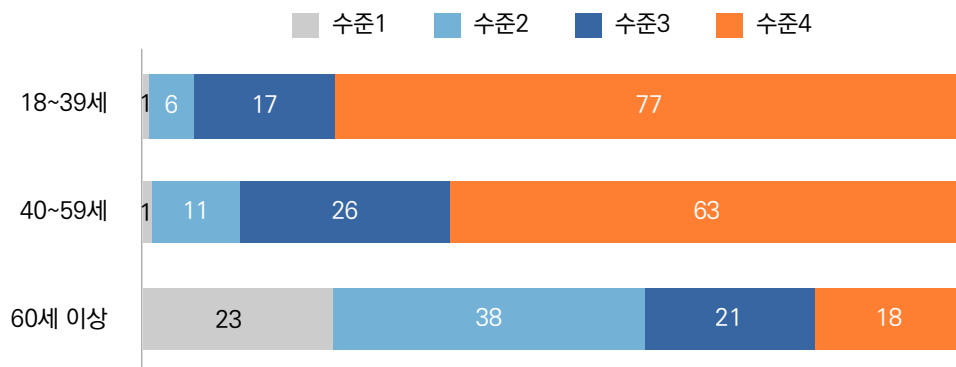
수준3 :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비판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수준4 :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청년층과 노년층, 디지털 문해력의 간극 커!

- 연령별 디지털 문해력 수준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수준1(디지털 이해/활용 어려움)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18~39세 젊은 층에서는 수준4가 77%로 압도적으로 높아, 청장년층과 노년층 간 뚜렷한 디지털 문해능력 격차를 보여준다.

[그림] 연령별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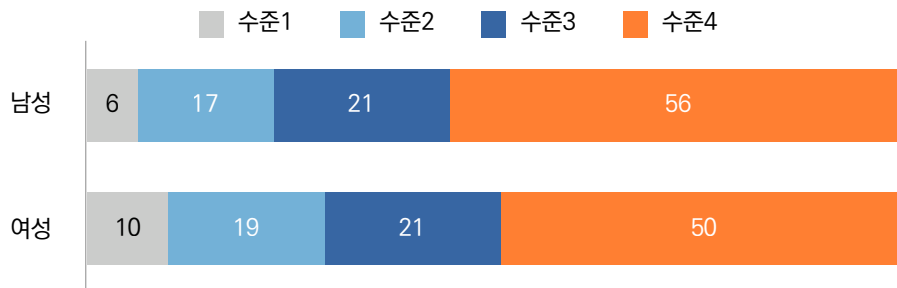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 발표, 2025.08.19. (만 18세 이상 성인 약 10,000명, 가구방문 면접조사, 2024.09.~2024.10.)

남성이 여성보다 디지털 문해능력 높은 편!

- 성별에 따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준4'는 남성 비중이 더 높고, '수준1'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성별 간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
- 이는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이 떨어지는 고령층일수록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성별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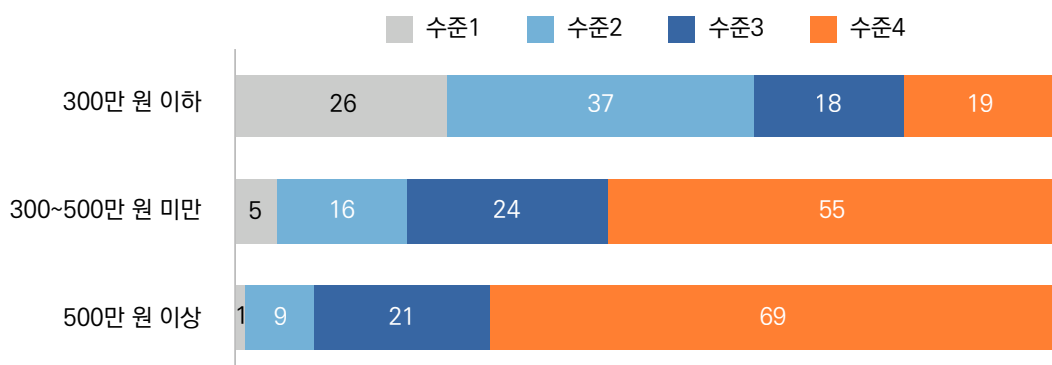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 발표, 2025.08.19. (만 18세 이상 성인 약 10,000명, 가구방문 면접조사, 2024.09.~2024.10.)

가구소득 낮을수록, 디지털 문해력도 취약!

- 가구소득 수준별로도 디지털 문해능력 격차가 드러났는데, 월 300만 원 이하 가구의 경우 수준1(디지털 이해/활용 어려움)이 26%로 300만 원 이상 가구(300~500만 원 미만 5%, 500만 원 이상 1%) 대비 크게 높았다.
- 반면 월 500만 원 이상 가구는 수준4가 69%로 가장 높아, 소득이 높을수록 디지털 활용 능력도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보여준다.

[그림] 월 가구소득별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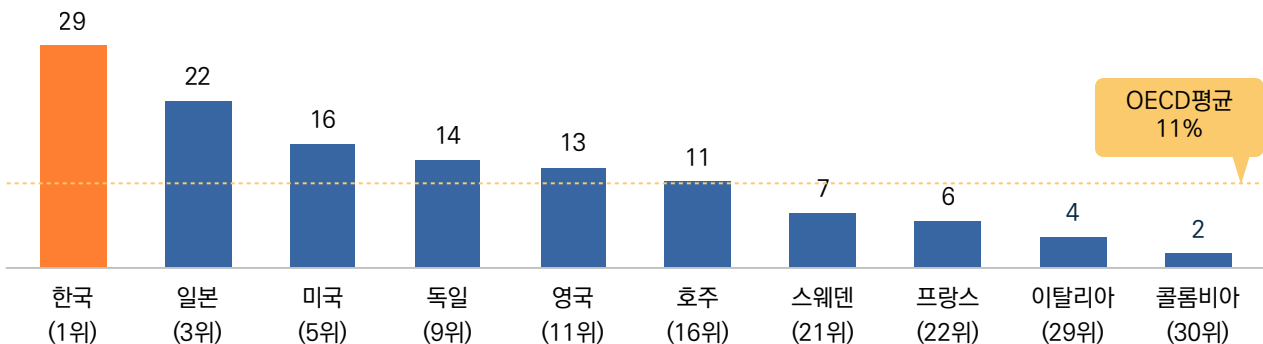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 발표, 2025.08.19. (만 18세 이상 성인 약 10,000명, 가구방문 면접조사, 2024.09.~2024.10.)



[성별 임금 격차: OECD국 비교] 한국,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 가장 커!

-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인지 통계’ 내용을 바탕으로 OECD국과 비교해 살펴본다.
- 2023년 기준 한국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29%로 OECD 평균(11%)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 OECD 30개국 중 콜롬비아가 2%로 격차가 가장 작았고, 미국 16%, 일본 22% 수준이었다. 한국은 조사 대상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

[그림] OECD 주요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 (2023, 15~64세 인구, OECD 30개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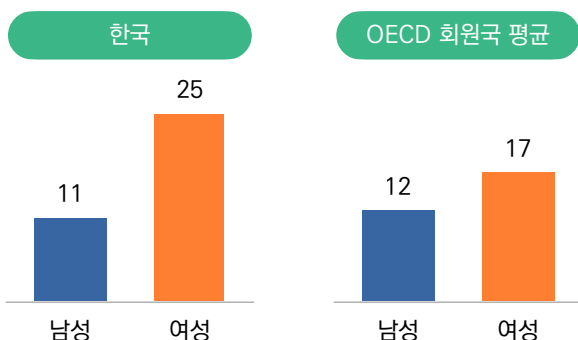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25년 양성평등주간 맞아 성인지 통계 기획보도자료 발표, 2025.08.29.

한국 여성, 저임금 근로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

- 이번에는 한국과 OECD 회원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비교해 본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5%로 남성(11%)의 2배 이상이었다. OECD 여성 평균(17%)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OECD 회원국의 경우 여성 17%, 남성 12%로 격차가 5%p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14%p 차이를 보여 성별 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격차가 OECD 평균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저임금 근로자* 비율 (한국 vs OECD 회원국, 2023년 기준,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25년 양성평등주간 맞아 성인지 통계 기획보도자료 발표, 2025.08.29.

*저임금 근로자 기준 :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를 말함. 즉, 전체 임금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위값(가운데 값)의 2/3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임.

다시 자살 1위, 교회는 위기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부동의 자살 1위,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의 위험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이 나타나면 사회는 도가니처럼 들끓었지만, 항상 그렇듯 때가 지나면 조용히 지나가곤 했다. 그 결과는 다음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조용히 있다가 다시 들끓어 오르는 것이다. 아직도 자살예방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고, 국가적 개입도 상당히 소극적이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면 허술한 부분이 많다.

한국사회에서 자살예방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면 2011년에 제정된 '자살예방과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실행이었다. 정부는 이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살예방에 나섰다. 예산도 편성을 했고, 시도별로 자살예방센터와 시군구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세워 자살예방에 앞장섰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정부가 나서자 자살자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11년 15,906명이던 자살 사망자는 2017년 12,463명으로 6년 만에 연 자살 사망자가 3,443명이 줄어들어 약 20%의 감소성과를 보였다. 실은 우리나라에서 자살 사망자가 1998년 이후 급속히 늘어난 것도 기록적이지만 이렇게 빠르게 줄어든 것도 대단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 첫째는 자살예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자 이렇게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정책과 활동 여부에 따라서 자살은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인 활동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해지고 정부가 활동을 하자마자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동안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둘째는 정부의 태도가 야속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로 1위 한 것이 2003년이다. 이때 이후 잠시 물러난 적이 있지만 20년 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2011년 이전 이 나라는 자살예방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자살예방에 나서는 것은 극히 적었다. 매년 국민 1만 4~5천 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걸 대한민국에서 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하기 전에는 일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핀란드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1위에 오르는 순간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이제는 핀란드가 9위, 일본이 4위로 내려왔다. 핀란드는 자살자 전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하여, 그에 근거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서 자살률을 내린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민간단체들과 연계하여 범국가적 대책으로 대응했고, 역시 성공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년 동안 1위 자리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자살은 2017년 저점을 찍고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에는 13,978명이 자살로 인해서 사망했다. 즉 2017년 이후 6년 만에 1,515명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살공화국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교회 역시 이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꽤 긴 시간 우리는 자살자에 대한 정죄로 예방(豫防)이 아니라 방지(防止)를 해왔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로 겁을 주어서 방지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자살에 대한 논의는 교회에서 하기 어려워졌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시도자, 자살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치유가 아니라 상처만 가져오는 상황을 가져왔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꺼내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일로 여겨져, 이에 대한 논의는 발전되지 못하고 묻혀버렸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archive/253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33호 \(2025년 9월 1주\)](#)

- 정당별 호감도, 주식 시장 관련 인식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63호 \(2025년 9월 1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 방향성 평가, 한미 정상회담 성과 평가, 사회적 신뢰

사회 일반

[평균 혼인연령 男 33.9세, 女 31.6세...재혼 비율 女가 더 높아](#)

동아일보_2025.9.3.

[육아휴직 쓴 아빠 처음 4만명 넘었다...3명 중 1명꼴로 남성](#)

조선비즈_2025.9.2.

[고독사 44%가 기초수급자...“개인의 책임 아닌 사회의 책임”](#)

주간경향_2025.9.5.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2배 급증...소송도 증가](#)

조선일보_2025.9.7.

[임금체불 1위 지자체는 '경기도'...체불액 절반 수도권 집중](#)

연합뉴스_2025.9.7.

[광주·전남 비만을 전국 최고 수준...10년만에 10%p 상승](#)

연합뉴스_2025.9.7.

아동 · 청소년 · 청년

[쉬는 청년 '취업 눈높이'는... 최소연봉 2823만 원-통근 1시간](#)

동아일보_2025.9.2.

[가난 경험했던 청년일수록 졸업·취업·분가·결혼 늦어](#)

조선일보_2025.9.3.

[\[단독\] 아프니까 청춘? 1020 심각하다...자살시도 응급실행 42%가 이들](#)

중앙일보_2025.9.8.

경제 · 기업

[2065년 되면 잘해도 GDP 대비 나라빚 133%...지금 보다 3배로 폭증](#)

중앙일보_2025.9.3.

[런던·도쿄보다 비싼 서울 먹거리 물가... OECD 평균의 1.5배](#)

조선일보_2025.9.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빛 못갠 자영업자 16만명...60대는 평균 3억](#)

중앙일보_2025.9.8.

[은퇴자 노령연금, 남성 63만원-여성 35만원...“경력단절 치명적”](#)

동아일보_2025.9.4.

[직장인 3명 중 1명 “기업문화 때문에 이직·퇴직 고려”](#)

머니투데이_2025.9.4.

[“직장인 13%, 직장 내 성범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

연합뉴스_2025.9.7.

[대리보다 많은 부장?... 늙는 대기업](#)

국민일보_2025.9.8.

국제 · 환경

[미국인 70% “아메리칸 드림 없다”...경제적 비관주의 확산](#)

연합뉴스_2025.9.2.

건강

[치매환자 동거가족 절반은 ‘수면장애’...발병 위험, 일반인 1.4배](#)

중앙일보_2025.9.1.

[인공감미료, 기억력 갇아먹는다 ... “1.6년 빨리 노화”](#)

동아일보_2025.9.4.

[HIV ‘99.9% 예방·치료’ 가능해졌는데...“인식·차별은 1980년대”](#)

한겨레_2025.9.4.

기독교 · 종교

[AI에 지혜를 묻는 시대], (국민일보)

[〈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목회자 대신 AI에 묻는 교인들](#) _2025.8.28.

[〈하〉 인간 존엄성 지키는 ‘AI 윤리·활용’ 지혜 모아야](#) _2025.9.4.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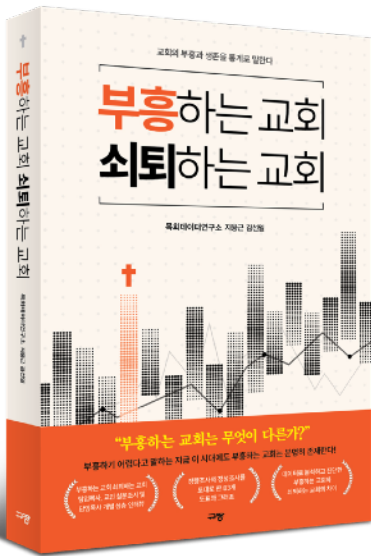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출간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책 구입 안내

퓨처 처치 돌파 세미나

저희 연구소의 후원기관인 FCI(Future Church Institute)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1) 주제 :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 2)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 19일(수)
- 3) 장소 : 성시교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8)
- 4) 강사 : 명성훈 박사 (FCI 대표)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 5) 문의 : 성시교회 (031-716-0091)



출판기념회 초대 및 책 구입 안내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출판기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책을 오는 9월 말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하셔서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14:00 ~ 15:30
- 2)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 3) 프로그램 : 기념식, 주요 내용 발표 및 저자 소개, 질의 응답

※ 오시는 분들(참석 신청자)에 한해 책 1권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책 구입 안내

참석 신청(선착순 100명)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